

# ‘잠재적 영재(the under-represented gifted)’의 재발견과 영재교육방향

박 성 의 (서울대 교육학과)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전체 학생수의 0.28% 이고, 그들 중 82%가 수학·과학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나머지 18%는 예체능, 인문, 사회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중앙일보, 2003년 3월 28일 조석희 기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제도와 정책면에서 볼 때, 전체 학생수의 3%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간주한다고 해도 ‘잠재적 영재’의 수가 ‘선발된 영재’의 수보다 적어도 10~15 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양한 잠재적 영재들 중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각종 특수분야의 영재들이 많이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학술대회는 ‘잠재적 영재들’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그들을 영재교육이라는 시각에서 여하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교육적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지능, 재능, 적성, 흥미, 동기 등을 키워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러한 그릇에 담겨질 재능이나 지능, 적성이나 흥미 등은 환경적인 자극과 영향을 받으며 그 싹이 자라고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연구해 온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즉 인간의 정신적 능력, 재능, 특성이 형성되고 신장되는데 있어서 여전히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론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결합되어 질 때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영재들의 성장배경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영재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제법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열쇠'였던 단재 신채호는 1880년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풍족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8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그는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9 세에 "자치통감"을 마치고, 13세를 전후하여 사서삼경을 독파했다.

우리나라에서 독학으로 대학자가 된 육당 최남선은 1890년 서울 이동(현재 삼각동 부근)에서 당시 학부 소관인 판상감의 6품 기사 최현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여섯 살때부터 이웃 서당에서 한문을 읽었는데, 하루는 그가 온종일 보이지 않아 식구들이 찾느라고 법석을 떠는 일이 있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기진맥진한 가족들이 모여앉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안방 다락문을 열어보니 찾던 육당이 바로 거기에서 숨으로 귀를 잔뜩 틀어막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집에서 장사를 하는 관계로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택한 학습행동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윈의 이론을 뒤엎은 우장춘 박사는 옹고집스러운 쇄국파 개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던 구한말, 1898년에 개화파의 망명 정객인 우범선을 아버지로, 사카이라는 일본 여인을 어머니로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 구례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곧바로 동경대학 농학부로 진학했다. 그는 그때까지 절대불변의 법칙으로 인정되어 온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론을 뒤엎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냈다. 그를 제2의 찰스 다윈으로 만들어준 논문의 제목은 배우 길다. "배추속 작물에 있어서 각 기본종간의 염색체 군에 관한 상호 관계분석과 유체의 인위적 합성 및 수정 양상의 특수 관계"가 그것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시절 모친이 사망하였으며, 25세에 주의원 당선, 51세에 대통령 당선, 54세에 노예해방선언을 하였다.

인도의 민족독립운동 지도자였던 간디는 수상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에 결혼, 고등학교 재학중에 부친 사망, 22세에 변호사 합격, 24세에 시티아그리아 운동을 벌인 정치지도자이다. 그리고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는 종교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재학중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모차르트는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나 3세에 음악의 천재적 소질을 나타냈고, 유아기 때부터 고등학교시절까지 가정환경은 계속 빈곤하였으며, 5세에 작은 곡을 작곡하였다.

독일 태생의 미국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빈곤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학교를 다니다 퇴학하고, 14세에 해석, 기하, 미분, 적분을 통달하였으며, 20세 초반에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20세 초반 결혼, 26세에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였고, 35세 이론, 37세에 일반상대성이론 완성, 42세 재혼과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은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 8세에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개월 후 퇴학, 12세에 열차내에 실험실 만들었고, 15세에 모친 사망하였고, 16세에 전신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퀴리부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학업을 우수하게 마쳤으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는 빈곤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19세에 흔들이의 동시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은 잠재적 영재로부터 스스로 영재로서 성장한 성공사례이다. 아마도 그들이 영재교육을 받았다면 더욱 훌륭하고 위대한 영재로 성장하였을른지도 모른다.

상당히 많은 인간은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갖고 태어나지만, 영재아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소외감, 좌절감, 이질감 등을 느끼게 되고, 결국 평범한 아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Buescher, 1987). 이는 1985년 취학전 영재로 선발된 일명 신동 144명 중 57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한 '사라진 신동들'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동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정책적 여건 때문에 영재로 성장하지 못하고 '잠재적 영재(the under-represented gifted)'로 남아있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실상은 '잠재된 영재 속에 더 많은 영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사회와 교육계 및 영재교육학자들은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아동이나 학생들 중에서 영재로 발굴되어 영재교육혜택을 받는 아동이나 학생들보다는 경제적, 사회적·문화적·환경적·교육정책적 이유 때문에 묻혀진 영재로 있으면서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학생들이 엄청나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적절한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영재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적·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고급두뇌양성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잠재적 영재'의 발굴과 그들에게 적절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잠재된 영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을 배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교육기회균등철학을 성취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교육복지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잠재적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 운영방향과 전략의 획기적 발상전환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시스템을 한 차원 높여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앞당겨 실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영재교육은 선택되었거나 선발된 영재들에게만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보다는 모든 잠재적 영재들에게 각자의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되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올바른 영재교육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잠재적 영재들'이 어떤 이유로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묻혀진 영재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공리주의 영재교육철학'에 입각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기존의 영재교육시스템에 융합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더라도 잠재적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관의 재정립은 시급한 일이며 당연한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잠재적 영재'란 어떤 아동들이며, '잠재적 영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그러한 잠재적 영재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서 잠재적 영재들의 수월성을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잠재적 영재’의 개념과 유형

### 1. ‘잠재적 영재’의 개념적 정의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시점에서 발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려면 특정분야와 한정된 수의 영재선발 위주의 ‘폐쇄적 영재교육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잠재적 영재’와 ‘소외된 영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확산적 영재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잠재적 영재와 소외된 영재의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 보는 일은 새로운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한 단초가 될 것이다.

영재교육분야에서 지금까지 ‘잠재적 영재’나 ‘소외된 영재’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깊이있게 논의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합의된 정의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소외된 영재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영재, 과학분야의 여성 영재, 장애가 있는 영재,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영재, 학습부진 영재 등이 이에 속한다(조석희, 2004). 그러므로 소외된 영재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과되거나 주류에서 멀어져서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주변부로 고착되어 평재로 남게되는 소수의 약자집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김동일, 2004). 그러나 잠재적 영재와 소외된 영재의 개념은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외된 영재’의 개념을 우선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사전에 ‘소외’란 사전적 의미로 주위나 어떤 무리에서 꺼리며 싫어하며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소외’란 일반적으로 사귀어 멀어진 상태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신착란으로 설명되고 있고, 특히 프로이드학파에서는 문화기구에 대한 개인의 적응장애로서 ‘개성의 해체’의 한 특징으로 보며, 또한 철학에서는 소외의 뜻으로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잃은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소외’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흔히 빈민층이나 소수의 계층 또는 소수의 약자를 지칭한다. 이런 소외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소외된 영재란 심리적 차원에서 정신적 결손요인을 지니고 있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거나 문화적 차원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는 영재라고 이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잠재적 영재’의 개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사전에서 ‘잠재’ 또는 ‘잠재적’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거나 잠기어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영재’란 영재교육 분야와 대상의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모든 아동들과 학생들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재로 발굴되지 못하였거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시각에서 적절한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재적 영재에는 경제적(빈곤), 사회적(성차별), 문화적(가정 언어문화), 교육정책적(영재판별기준과 선발기준) 이유 때문에 '미발굴된 영재, 미확인된 영재, 사회적·교육적으로 관심 밖의 분야에 탁월성을 지니고 있는 영재, 발탁 안 된 영재, 인간생활 전체분야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미지의 영재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외'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학술적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장애, 소수, 빈곤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소외된 영재'보다는 인간생활 전체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미확인, 미발굴, 미선발의 영재로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 영재(the under-represented gifted)'라는 용어가 더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잠재적 영재'의 유형

'잠재적 영재'는 제도권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재로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은 적합한 영재교육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재능과 역량을 발휘시키지 못하고 묻혀있는 영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잠재적 영재들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습부진 영재 : Whitmore(1986)는 학습부진 영재아들이 게으르거나 동기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학교 과제에 동기화되지 않은 영재라고 지적하였다. 영재아가 학습부진현상을 보이는 것은 가정과 학교의 복합적인 상황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Nyquist(1973)는 뉴욕에서 자퇴한 고교생 중 19%는 '영재'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영재아 중에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은 학습부진아이였거나 학교에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었다고 지적하였다. Rimm(1990)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언어성이 매우 우수한 영재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성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재아들은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 (2) 각종 분야에서 특수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는 영재 :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은 과학과 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과학영재들의 육성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타의 분야에 특수한 재능이나 역량을 지닌 영재들은 안중에도 없고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영재들은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비록 큰 집단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능개발과 역량신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잠재적 영재들로 남아 있다.

-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하여 타고난 재능을 계발시키지 못하는 영재 : 일부의 아동들은 비록 그들이 특출한 재능을 타고났어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영재성을 신장시킨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재들을 지칭한다.
- (4) 성차별 가치관에 따른 과학분야의 여성 영재 :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과학분야의 영재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과학분야의 영재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가치관도 팽배해 있는 편이다(Brush, 1991). 그러므로 비록 과학분야에 영재성을 지닌 여성 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과학분야의 영재성을 키워가는데 어떠한 격려나 교육적 배려도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과학분야의 여성 영재는 자칫 잠재적 영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5) 장애 영재 :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장애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서 그들의 영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잠재적 영재로 남아 있다.

### III. '잠재적 영재'의 발생배경

잠재적 영재나 소외되는 영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며, 몇 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소외된 영재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조석희(2004)는 제한된 영재성의 개념, 탈락위주의 영재의 판별철학, 제한된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여학생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잠재적 영재의 발생배경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영재의 발생배경에 따른 발전적 영재교육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영재교육의 당위성에서 비롯된 잠재적 영재

영재교육이란 원론적으로 말하여 우수한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월성을 제고하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한다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 일차적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재들의 발굴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고급인적자원의 개발과 그들의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려는 이차적 당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의 두 가지 당위성 중에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당위성은 지극히 도구주의적 교육관이 내재되어 있다. 즉 고급인적자

원의 확보는 곧 국가발전의 동력엔진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과학영재교육의 분야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및 삶의 질적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와 고급두뇌는 비단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영재들이 육성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다양한 분야나 영역이라 함은 인간생활의 전체 분야와 영역을 포함하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영재교육의 분야선택과 영재교육 대상선발은 나름대로 특수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일면으로는 편협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영재교육 분야와 영역의 포괄성이라는 점에서 영재교육 관점의 변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 2. 영재선발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영재

영재성의 정의는 다양한 재능 능력 특기를 아우르는 ‘포괄성’과 급락의 선발기준에서 근접영역을 인정하는 ‘관대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영재교육정책 차원에서 영재의 개념적 정의와 판별방식이 정예성(parsimony rule)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영재선발 비율이 극소화되고, 그 결과로 제도권의 영재교육체제가 빚어낸 피해자로서 소외되거나 잠재된 영재들이 생기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재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 수의 0.5%를 선발한다는 영재선발제도에 따라 소외된 영재가 생기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렌즐리 교수는 전체 학생의 약 15-20%까지 영재가 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영재의 선발기준과 잠재적 영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에서는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에 이르고 있다(조석희, 2004). 그러나 잠재적 영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정책은 이와는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학 및 과학 위주의 영재교육정책으로 오히려 많은 영재들을 잠재적 영재로 탈락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적위주 영재교육으로 다양한 재능을 지닌 영재들이 배제되고 있다. 조석희(2004)는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성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거나 영재성이 의심스런 학생을 탈락시키는 배제방식의 현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으로 다른 분야의 영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과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분야 영재는 17.7%에 불

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재선발의 방식 면에서도 정형화된 선발기법을 탈피한 유연한 선발기법(flexible selec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박성익, 2004). 이러한 관점의 수용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것은 객관주의적 공정한 판별과 선발준거에 얽매어야 하는 사회적 통념, 인식, 가치관이 무너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 3. 영재교육분야와 영재프로그램 제공의 제한성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영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두뇌의 자연과학분야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재교육정책이 여타 분야의 영재들을 소외된 영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영재교육정책은 점진적으로 영재교육 분야와 영역을 다변화, 첨예화, 실용예술화(공간디자인, 요리기술) 등의 소외된 영재분야와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잠재되었거나 소외된 영재들을 발굴·교육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소외된 영재들을 위한 영재교육의 최선의 확산전략은, 능력과 특성면에서 일반 영재들과 소외된 영재들 간에는 차별성이 있을 지언정,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소외된 영재들도 기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부분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통합영재교육체제(Integrated Gifted Education Program)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박성익, 2004). 통합영재교육체제를 통해 소외된 영재들의 경우에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선발된 영재들과 대등한 학습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소외되는 잠재적 영재

우리사회에는 누구도 한결같이 지향하는 출세지향병과 일류병이 있다. 진로분야에서도 그렇고 재능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분야 만큼 다양한 수만 개의 영재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학·과학분야 아니면 특정의 예술·체육분야에 많은 아동들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영재성장 토양과 자녀교육 가치관을 살펴 보면, 대부분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판사나 의사가 되는 것을 지고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여타의 재능 분야나 능력은 인정받기 힘들고 잠재적 영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형이 영재인 경우 동생인 영재 아동을 적절한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법은 영재아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며 영재아동 자신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순위 아동도 어쨌거나 압력을 느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역할기대나 영재 성향에 대한 선입견도 영재성의 분화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외된 영재가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여성은 과학분야에서 영재성을 나타내기 힘들다고 부모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성 아동들조차도 여성이기 때문에 과학분야의 영재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부적절한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교육관에서 배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잠재적 영재’의 중요성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문화적 발전(sustainable cultural development)을 보장받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균형있게 양성되어야만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즉 한 국가의 발전이 예술분야만 번창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고양되고 문화창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첨단 과학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나 문화의 총체적 역량은 인간 삶의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모든 생활분야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문화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재교육의 방향은 과학분야, 예술분야,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영역이나 분야(예, 언어문학, 리더십, 특수재능, 사회과학분야 등등)도 인간의 삶과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영재교육분야로 제쳐 두는 것은 크나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잠재적 영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살펴 볼 때,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발전의 엔진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산출물과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이 양성되어야만 할 것이며, 과학분야, 예술분야, 체육분야 등과 같이 제한된 특정 분야의 우수영재들을 소수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은 영재 인적자원의 저변인구 기반구축에 취약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의 소수 분야에 집중적 도제식 영재교육은 영재성의 질적 수준과 역량 면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야를 가진 영재육성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다종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지닌 영재들을 찾아내어 그러한 영재성향을 백분 신장시켜 주는 것이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영재들을 길러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재들의 분출은 때로는 이미 기성의 정형화된 지적·창의적 우수능력을 지닌 아동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발굴된 때문지 않은 잠재된 영재들 집단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독특한 재능과 특기를 지닌 아동들 중에서 영재성을 발현하여 인문·사회·생활 영역의 창의적 지혜를 창출하게 되는 힘으로 명실공히 문화가 창달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영재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특수 영재성을 지닌 아동들은 그들의 특수 재능을 계발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나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특수 재능을 지닌 잠재적 영재들은 자발적으로 성장하다가 다행스럽게 우연히 어느 곳엔가 도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들의 잠재적 영재성이 빛을 발하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희소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말없이 흔적없이 사라져 버리는 '영원한 잠재적 영재'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화발전의 도약을 기대하려면 문화분야의 특수 재능을 지닌 잠재적 영재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재발견하고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영재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육적,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흔히 어떤 이유로든지 영재로 선발되거나 발탁되지 못한 아동이나 학생들은 영재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좌절감에 빠지거나 아예 영재인지조차 모르고 일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수월성을 키워나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독특한 재능을 지닌 영재들은 학교교육과 사회에서 무관심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벽안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출난 재능의 싹을 꺾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 자신의 영재성을 살릴 수 있는 영재교육기회를 얻지 못하여 수월성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교육평등주의 사상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즉 모든 아동들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교육권리장전이 열려있어야 민주복지사회와 교육평등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풍토에서 성장한 잠재적 영재들은 스스로 재능과 능력의 최대 발현을 통한 꿈의 실현과 자아실현을 하게 되고, 사회문화발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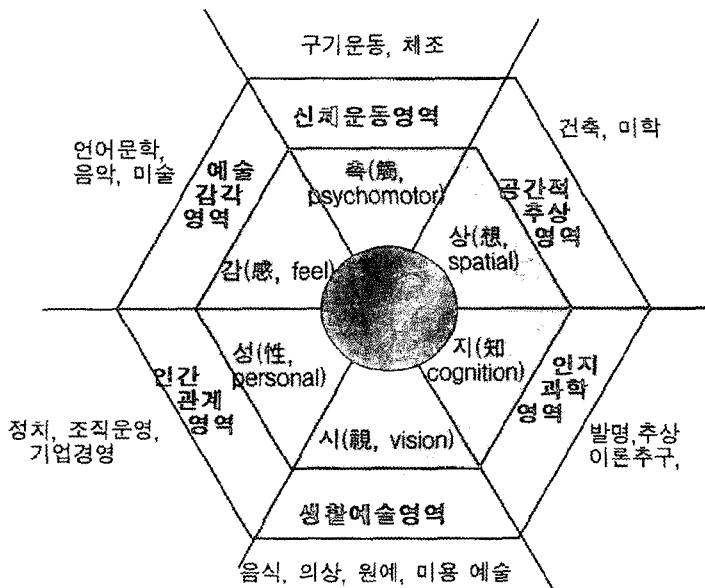
## V. '잠재적 영재' 들을 위한 영재교육방향

### 1. 외길 재능신장의 영재교육전략으로부터 다양한 재능이 중첩된 입체 교차로식 재능신장의 영재교육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창의적 산출물을 대표하는 용어인 '문화의 다양한 영역'과 영재성을 연관시켜서 인간 문화의 여러 측면을 구조화해 보면, 잘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대략 "6 각형 영재성-문화 구조 모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영재교육은 인간의 생활영역, 학문분야, 교과내용영역 등에 국한된 매우 분야.영역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만큼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천적 접근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한 관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재능이나 특수능력의 수월성은 다양한 분야가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이루는 다면적(multi-dimension) 수월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일 분야에만 집착하여 수월성을 나타내려는 단면적(one-dimension)수월성

의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영재 분야 및 영역들이 두 개 이상 교차되어 나타나는 영재성(예, 공간적 추상영역과 생활예술영역)을 지니게 되면 지금까지는 정예의 영재로 인정받는데 불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더 확산된 시야에서 영재교육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하여 영재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영재교육의 안목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틀에 박힌 영재교육분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수영역 중심 영재교육에서 광역화 영재교육으로 접근한다면, 때로는 특수한 재능에 속하는 무형통신기기, 상상공학, 게임, 로봇, 미술 스튜디오, 특수활동예술 등등을 영재성의 범주로 포함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화할 필요도 있다.



## 2. 잠재된 영재들이 표면화되고 발굴되도록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기존의 영재교육시스템에 공조되도록 '융합의 영재교육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정책 차원에서 영재의 개념적 정의와 판별방식이 정예선발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영재선발비율이 극소화되고, 그 결과로 소외된 영재가 발생된다. 즉 제도권의 영재교육체제가 빚어낸 피해자로서의 소외된 영재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재된 영재가 생기게 된 배경과 원인들을 고려한 판별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

이며, 영재선발의 방식 면에서도 정형화된 선발기법을 탈피한 유연한 선발기법(flexible technique)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잠재적 영재가 생기게 된 요인, 배경, 특성, 환경 등에 따라서 적정 비율로 영재를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영재선발 과정에서는 소외된 영재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소외된 영재학생들이 생기게 된 배경요인(예, 경제적 요인, 학습부진요인, 장애요인, 성차별 요인 등등)을 고려한 영재선발방식(극단적인 방식으로는 영재선발할당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수용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것은 객관주의적 공정한 판별과 선발준거에 얽매어야 하는 사회적 통념, 인식, 가치관이 무너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면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Feldhusen(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재아를 판별하고 그를 '영재아'라고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소외된 영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상호 역할기대나 영재성향에 대한 선입견도 영재성의 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외된 영재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적절한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교육관에서 배태되므로,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부모, 교사들을 위한 영재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VI.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 역사는 그리 긴 편은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지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공포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도약의 획을 긋는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과학영재고등학교도 설립되었고,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원의 설립이 활성화되어서 이제는 영재교육이 제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영재학생들의 수와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영재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들의 수보다는 영재로서 성장 가능한 잠재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재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묻혀있는 영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아직도 한번 더 도약의 계기가 와서 보다 많은 잠재적 영재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영재교육의 분야와 영역도 기존의 과학,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이외에 인간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와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영재로서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영재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신장시켜 줄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기본입장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영재들을 위한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영재교육의 당위성, 영재의 개념전환, 유연성있는 영재판별방법 구안 뿐만 아니라 소외되었거나 잠재된 영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잠재적 영재들의 발굴과 교육이 곧 국가적 재산이며, 국제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고, 한국사회의 미래의 횃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양한 잠재적 영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는 미래지향적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일(2004년 5월). “소외된 영재의 발굴과 재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영재교육정책 활성화 방안(제22차 KEDI 교육정책포럼).
- 박성익(2004년 5월). “소외된 영재의 발굴과 재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영재교육정책 활성화 방안(제22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조석희(2004년 5월). 소외된 영재의 발굴과 재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영재 교육정책 활성화 방안(제22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중앙일보, 2003년 3월 28일 조석희 기고, “초중고 12년 숨죽여 지냈다”.
- Brush, S.G.(1991).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American Scientist, 79, 406.
- Feldhusen, J.F.(1992) 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Gifted Child Quarterly, 36, 123.
- Nyquist, E. (1973). The gifted: The invisibly handicapped, or there is no heavier burden than a great potential.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gifted, Albany, NY.
- Rimm, S. B. (1990) A theory of relativity. Gifted Child Today, 13(3), 32-36.
- Whitmore, J.R. (1986). Understanding a lack of motivation to excel. Gifted Child Quarterly, 30, 66-99.